

국립공원 이용문화



윤 화 영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우리나라 국립공원 개설은 1967년 공원법의 제정과 함께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모두 20개로 늘어났고, 그 중 산악형 국립공원이 주를 이루는 육지국립공원의 면적이 약 3,825km²이고, 해상국립공원이 약 2,649km²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형태의 국립공원은 모두 산과 바다라는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인간의 원초적 정서가 내포된 인간생활의 필

수적인 자연공간이 아닌가 한다. 특히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인간이 받을 불이고 살고 있는 생활터전인 육지에 있는 국립공원으로서, 보건·휴양 및 인간의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국립공원을 찾는 이용자는 '82년에 1천5백만명에서 '83년에는 3천만명, 그리고 '90년에는 3천9백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앞으로 국립공원의 이용 수요에 따른 어용 방안과 효

올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적·휴양적 이용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탁월한 자연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산과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된 자연공간이다. 이러한 자연공간은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국토면적을 가진 나라에서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은 일반 공산품과 같이 수요가 증가하면 즉시 생산설비를 늘려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국립공원이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을 무한정 늘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한된 공간에 무작정 많은 탐방객을 수용할 경우 국립공원의 설치목적 자체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는 국립공원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 첫째로, 일반 대중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의 재고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설치 목적과 의미를 이용자들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국립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 탐방객들도 국립공원이 주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의 행락문화 바로잡기에 그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국립공원도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장소로 간주해서 그저 하루정도 찾아가서 놀고 먹는 장소, 또는 일정한 입장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용 행태는 국립공원의 모체가 되는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와 직

결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놀이문화의 정착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로, 국립공원은 가능한 한 자연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이용객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립공원내에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하고 다른 어떤 위락시설이나 레저 시설도 철저히 배제하는 보전적 개발을 통하여 생태적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국립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간략하게 세가지 경우를 들어 그 해결책을 논했다. 어쩌면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국립공원의 존재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만큼의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국립공원은 21세기에도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까. ●